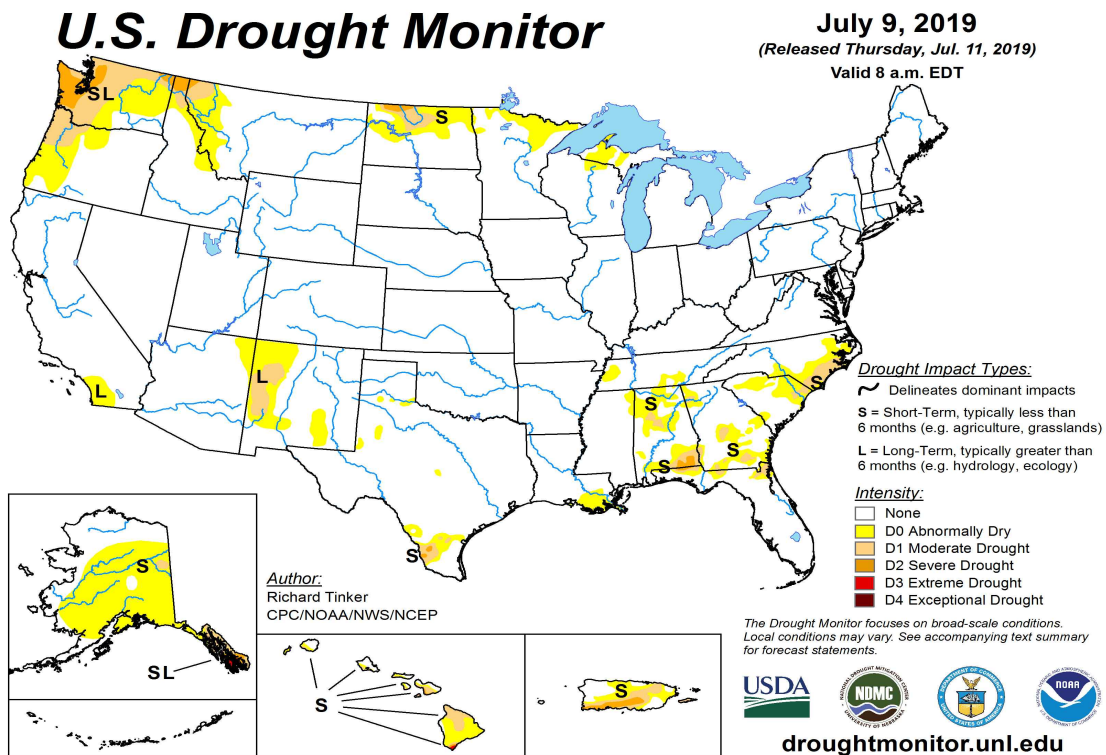


7월 1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68)

□ 미국 기후 현황(7/7~7/13)

허리케인 ‘배리’는 지역적으로 폭우를 내렸고, 강하지 않은 폭풍 해일을 일으키면서 7월 13일 루이지애나 남부에 사태를 일으켰으나, 무질서했던 폭풍의 경로에 있었던 작물과 지역 사회는 대체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내륙에 들어서자 ‘배리’는 북쪽으로 이동했고, 빠르게 세력이 약화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변했고, 7월 14일에는 열대성 저기압이 되었다. ‘배리’의 영향권 밖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지역적으로 남동부와 대서양 중부주들에 내리면서 국지성 홍수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초지와 여름작물들에는 대체로 유익했다. 국지성 폭우는 대평원의 북부와 중부를 적셔서 네브라스카의 남중부와 동몬타나에서부터 노스다코타에 이르기까지 최대치의 총강수량을 보이는 곳이 몇 곳 있었다. 넓고 광활한 서부와 중서부 일부를 포함하여 미국 내 다른 많은 지역들의 날씨를 덥고 건조했다. 단기 건조가 옥수수 벨트의 남부와 동부에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전에 침수되었던 토양이 딱딱해졌다는 ‘압밀’ 현상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정상과 비교해서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날씨가 애팔라치안 중부와 남부 그리고 인근 지역에 영향을 주었는데, 남동부의 많은 지역은 주간 평균 온도가 정상보다 5° F 가량 높았다. 정상보다 시원한 포켓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대평원의 중부와 남부에 한정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7/8~7/14)

비가 델타, 플로리다, 네브라스카 일부에 가장 심하게 내렸고 어떤 지역은 4 인치가 넘게 내렸다. 허리케인 ‘배리’는 루이지애나 해안 일부를 따라서 8 인치가 넘는 비를 내렸다. 국내 대부분이 주간 내내 정상보다 더웠는데 특히 대평원 북부, 대서양 연안 중부, 남동부, 남텍사스, 태평양 북서부 일부가 더웠다. 이곳들의 온도는 국지적으로 정상보다 4° F 이상이었다. 반면 미국 서쪽 절반의 일부에서는 정상 이하의 온도가 눈에 띄었다. 캘리포니아와 대평원 중부와 남부의 일부에서는 온도가 정상보다 2° F 이상 낮았다.

□ 세계 기후 현황(7/7~7/13)

■ 유럽: 최근 폭서를 맞았던 중유럽과 동유럽에 때마침 비가 내리고 온도가 시원해지면서 여름작물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었다. 독일에서부터 동쪽으로 6월과 7월초에 있었던 폭염과는 대조적으로 평균 온도가 정상보다 1~3° C 낮았다. 더욱이, 이곳에는 같은 기간 동안 10~60 mm의 강우가 보고되었다. 이런 시원하고 비가 내리는 날씨는 생식에 근접하고 있거나(북부), 생식이 진행되고 있는(남부) 옥수수, 해바라기, 콩에게는 아주 시기적절했다. 그리고 여름작물의 수확량 전망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유럽 대륙의 서쪽 삼분의 일은 평균 온도가 정상보다 4° C 높았다. 이곳에서 열 스트레스(낮 최고 온도가 섭씨 30도대 중반~상위)가 발생한 곳은 낮 최고 온도 38~42° C를 기록했던 스페인뿐이었는데, 여름작물이 가뭄 스트레스를 받아 잠재 수확량이 삭감되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베리아 반도 북부에는 상당히 필요했던 비(10~25 mm)가 내려 옥수수와 해바라기에게 필요했던 수분을 국지적으로 보충해주었다. 이탈리아 북부에도 비슷한 정도의 비가 내려서 발달 중이던 단기 건조를 완화시켜주었지만, 서부 일부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하지만 7월 15일 현재 이탈리아 서부 일부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 구소련(서부):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완벽히 시기적절한 비가 내렸고 온도도 시원했다. 최근의 폭염 이후 가장 동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곳이 주간 평균 온도가 정상보다 2~4° C 낮았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10 mm 이하) 중간~강한 소나기(10~55 mm)가 내리면서 시원한 날씨를 동반했다. 시원하고 비가 내리는 날씨는 여름작물에게 이상적이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콩이 완전 개화기에 도달하고 있었고, 옥수수는 숫이삭 출수기(우크라이나)에서부터 수염기(러시아 남부)에 있었고, 물도바,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에서는 해바라기가 개화 초기에 이르렀다. 주말 이후 비가 더 많이 내리면서 생식 중인 여름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은 6월의 폭염과 건조 때보다 상당히 회복되었다.

■ 동아시아: 중국의 많은 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여름작물에게 아주 좋은 수분 조건을 유지시켜주었다. 남중국산 총강수량(50~200 mm)이 가장 높아서 영양 성장 중인 늦작물과 단기작물에 유익을 주고 있었다. 한편 북동부의 서쪽 성들(흑룡강, 길림, 요동, 내몽골)에 내린 25~100 mm(국지적으로는 더 많음)의 비는 생식기에 가깝게 도달한 옥수수와 콩에게 좋은~최고의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주었다. 강우가 일정하지 않은 요동성에게 이 수분은 특히 고마웠다. 북중국 평원의 동부와 북부에도 비슷한 양의 강우량이 보고되어 여름작물의 발달을 돕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중국 평원의 서쪽 일부에서부터 중앙 양쯔 계곡에까지 건조한 포켓 하나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최근의 고온이 누그러지면서 작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있었다. 그 밖의 지역은 남한의 남부와 일본 남부에만 비가 내렸고(25~100 mm) 한국과 일본의 다른 비 재배지역은 날씨가 불리하게 건조했다.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일부에서는 아주 필요했던 비(5 ~ 15 mm, 국지적으로는 더 많 이)가 내려서 가뭄으로 심하게 타격을 입은 지역들의 표토를 적시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비가 큰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장기간의 가뭄을 끝내고 재배초기 아주 건조했던 겨울밀의 전망을 개선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뭄에 영향을 받은 퀸슬 랜드 남부에는 반복적으로 적시는 비가 내려야 한다. 이곳은 건조가 지속되어서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의 잠재 수확량을, 느리지만 계속해서 감소시키고 있었다. 더 먼 남쪽, 호주 남 동부에 널리 내린 소나기(10 ~ 25 mm, 국지적으로는 더 많이)는 밀, 보리, 캐놀라의 상태를 좋게 유지시켜주었다. 밀 벨트에 있는 그 밖의 지역을 보면 서호주에서는 대체로 화창한 하 늘과 적당한 토양 수분이 조합되어 겨울곡물들과 유지작물의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계절적으로 더운 날씨는 서호주의 겨울작물에게도 유익했다. 남호주와 동호주에서는 평균 온도가 정상보다 1-3° C 높아서 겨울곡물과 유지작물의 발달을 가속화하였다.

■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대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서 최종 단계에 있는 여 름작물 수확과 겨울곡물 파종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다. 중앙 아르헨티나(라팜파, 부에노스아 이레스 서부와 중부, 코르도바에서부터 엔트레리오스까지의 인근 장소들)의 주요 옥수수 및 콩 지역들에는 3주 연속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는 건조한 날씨로 지난 주 비가 내린 이후 겨울곡물의 파종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건조를 동반한 온화한 날씨(낮 최고 온도는 20° C에 육박했고 최저 온도는 잠깐 동안 0° C 이하로 떨어졌다)는 파 종된 곡물의 출현을 도왔다. 먼 북쪽은 건조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아 있는 목화에게는 유익 했으나, 길어진 건조 기간 이후에 출현하고 있는 겨울곡물을 위해서는 비가 내리는 것이 좋 았을 것이다. 정상보다 최대 4° C 높았던 주간 평균 온도는 북부 농업에 미치는 건조의 영 향을 배가시켰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목화는 7월 11일 현재 약 90% 수확되었고, 옥 수수는 6% 진전되어 72% 완결되었다. 한편 밀은 전국적으로 90% 파종되어 작년 대비 8% 지체되고 있었다.

■ 브라질: 브라질 남부와 중부에 있는 주요 농업 지대에는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남부 생 산 지대에서의 밀 파종은 물론이고 옥수수와 기타 여름 발작물들의 수확을 도와주고 있었 다. 총 강우량 10 mm 이상의 비가 북동부 농업 지대에만 내렸는데, 국지적으로 북동부 해 안을 따라서 총 강우량이 50 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커피, 코코아, 사탕수수에게 필요한 수분량을 올려주었고, 마란하오 인근에는 적당한 비(10 mm 이상)가 내렸다. 그 밖의 지역은 건조하여 계절적인 밭 작업을 하기에 좋았다. 마토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7월 12 일 현재 76% 수확되어 5년 평균 대비 25% 빨리 진행되고 있었다. 목화는 7% 수확되어 평 균 보다 3% 뒤쳐졌다. 브라질에서 보다 건조한 생산 지역들은 주간 평균 온도가 정상 근처 거나 높았지만, 파라나 남부처럼 먼 북쪽은 주초의 결빙(밤 최저 온도가 -2° C로 떨어짐) 때문에 밀의 발달이 늦어졌고, 가장 일찍 발달하고 있었던 밀은 다소의 서리 피해를 입은 것 같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 작물 옥수수는 7월 8일 현재 48% 수확되었고 나머지 작물의 85%는 성숙 중이었다. 한편 밀 파종은 99 퍼센트로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출현한 작 물의 거의 40%가 개화 중이었다. 리오그란데 도 술에서는 7월 11일 현재 밀이 96% 파종되 었고 3%가 개화하고 있었다.

